

# “메르스 ‘직격탄’ 세월호 때보다 어려워 ... 정부가 나서야”

##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9~11일 명품 관광대전

일본 유력일간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7조8100억엔(한화 약 71조원)으로 흑자 폭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흑자 폭을 끌어 올린 요인 중 하나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에 주목했는데, 같은 해 이들이 지출한 돈은 2조2344억엔(약 2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일본의 관광수지는 2099억엔(약 1조9000억엔) 흑자로 1959년 이후 55년 만이다.

이와 달리 동기간 국내의 관광수지는 1억 9460만달러(잠정치·2186억 3000만여원) 적자다. 올해 1~5월 역시 관광수지는 14억 7380만달러(잠정치·1조6528억6000만여원) 적자를 보였다. 아직 통계가 작성 중이지만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방한 외국인 숫자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가 지난달 말 종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메르스는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손실액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공항 국제선 관광객 크게 줄어

성수기 불구 전망 흐려 소비심리 회복 시급

범정부 차원 국내 관광활성화·세계혜택을

GDP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관광산업 직격탄=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메르스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되면 2조5612억원~4조6366억원의 관광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져 내수부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4년 국민여행 실태 조사'상 국내 여행 방문지 상위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15.7%)와 서울(11.6%), 충남(10.3%), 경남(9.2%), 강원(8.8%)의 경우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달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수는 오는 15일까지 정확한 집계 발표될 예정이나 이들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자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감소했고, 지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업계에 필요한 것은=한국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의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각각 24만3067명, 37만9166명, 10만6281명이다. 지난해 6월 32만5069명(김포), 37만6895명(김해), 22만7235명(제주)과 비교하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2곳 공항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

◇3·4분기 관광산업 전망 흐려=이미 메르스 여파로 지난 2·4분기 국내 관광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업황 현황지수는 14(기준치 100)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무려 39포인트나 떨어졌다. 2007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3·4분기 역시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1로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4분기 역시 관광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업계에 필요한 것은=한국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광주·전남 관광 시장을 앞두고 설명을 듣고 있다.

〈경주일보 자료사진〉

관광협회중앙회는 침체된 국민 관광 심리의 회복을 위해 정부 중심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관광 상품권 이용장려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MICE협회는 중앙회의 입장에 지방자치단체의 포함까지 주장했다.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중앙,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학회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과 세계지인 혜택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종합유원시설연합회는 안전한 한국 관광 홍보와 더불어 메르스 종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 전남도 가용 재산 사실상 '0'

논·밭 등 명목상으로 1조

대부분 사용 중·보존림

미래 전략 수립 외부자본 의존

전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1조원이 넘는 논·밭, 대지, 임야 등 재산 가운데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공장 및 기업 유치, 신규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외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월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유재산은 10만7184필지 2억535만2463㎡이며, 공시지가로는 1조1808억6700여 만원에 이른다. 임야가 1억819만6460㎡(2126억 4300여 만원)로 가장 많고, 담 4464만 3486㎡(2697억여원), 전 1910만7624㎡(1184억6100여 만원), 기타 3191만911㎡(3978억3500여 만원), 대지 149만3982㎡

(1822억2500여 만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토지가 사용되고 있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그나마 남아 있는 토지도 산 정산 등 보존림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예비용 토지를 비축하지 않고 과거 쓸모 있는 도유재산을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모두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로 개설이나 청사 신축 등의 과정에서 도유재산이 증가했을 뿐 이들 재산은 가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담은 농업기술원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는 모두 청사나 공공사무소로 쓰이고 있다. 임야는 접근이 어려워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오지로,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공장 및 기업 유치 등의 과정에서 도유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용도지역 변경 등 외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벌이면서 미래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발대상이 사유지보다보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등과의 마찰도 되풀이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전남도의 도유재산 가운데 가장 유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선진국의 지자체들은 토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역개발 촉진에 나서는데 전남도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토지 비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관리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실행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토지”라며 “도유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줄겠지만 현재 여건상 토지를 비축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장성 목재 펄릿 제조업체 보조금 횡령

전남도, 검찰 고발 ... 6억 회수키로

전남도가 막대한 보조금(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한 결과 목재 펄릿 제조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12억 2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S업체 대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목재펠릿 설비 시공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2억34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해 채무 상환과 묘지 이장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A씨는 또 자부담 공사비 8억6524만원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2억3400만원과 자부담분 미지급 공사비 3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각

각 회수할 방침이다. 목재 펄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를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후 건조·압축해 만든 난방용 재료다. 전남도는 또 이번 감사에서 장성군 모 양로원 종사자 10명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통근버스로 매일 오후 6시 퇴근한 뒤 밤 10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당 2369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 근무수당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장성군 공무원 B씨와 관급자제 조경석을 구매하면서 예정가격을 부정정하게 산출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일간 장성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징계 2건, 시정 28건, 주의 9건 등 모두 3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광주전남연구원장 모집

27일까지 원서 접수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첫 결과물인 광주전남연구원원 이사회의(이사장 김수삼)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제1대 원장 임용을 위해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이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용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에 있거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할 사람이다.

지원희망자는 응모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양식을 누리집(www.gji.re.kr/www.jeri.re.kr)에서 내려받아 광주전남연구원(구 전남발전연구원 또는 구 광주발전연구원)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븐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 S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